

# 전략노트

Notes on Strategy

2021-2호

## '참호전' 양상의 미중 경쟁을 돌파하는 길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 연구위원)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참호전’ 양상의 미중 경쟁을 돌파하는 길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여러 곡절 끝에 드디어 출범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국제질서 변화의 미래와 미중관계의 향방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전망이 제기되어왔다. 대체로 희망과 기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 같다.

### 참호전을 떠올리며

작금의 미중 경쟁과 대립의 모습은 ‘참호전’을 떠올리게 한다. 참호전은 1차 세계 대전 당시 서부전선에서 나타난 전투 양상을 일컫는 말이다. 1914년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를 빠르게 제압하고 러시아와 전면전에 돌입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해 9월 엄청난 속도로 프랑스를 향해 진격해 들어간 독일군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다. 그 후 독일은 점령지의 유지와 방어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적의 진격 저지와 역공 기회의 모색을 위해 공히 참호를 팠다. 그렇게 시작된 참호전은 이내 물량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양측은 참호를 사이에 두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새롭게 등장한 근대식 교육과 대량생산체제에 힘입어 양 진영은 끊임없이 군인과 물자를 전선에 투입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참호를 무력화하기 위해 치열한 신기술과 신무기 경쟁도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런 자원 투입 경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쟁 참여국이 대폭 확대된 것도 특징적이었다.

다른 한편, 참호전은 의미 없는 소모전이기도 했다. 참호는 상대를 소모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참호선이 동시에 형성됨에 따라 양측은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마저도 끊임없이 소모시킬 수밖에 없었다. 당시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많은 수의 군인들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히 연합과 동맹의 이름으로 결박돼 전쟁에 참여한 유럽의 군소국가들이 치러야 했던 희생과 소모의 크기도 상당했다.

또한 참호전은 전세의 장기 교착, 즉 장기전의 특성을 보였다. 양측은 당시 유력한 전투 수단이었던 참호의 구축에 매달렸고, 그 결과 사실상 서부전선 전체에 걸쳐 긴 참호선이 형성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참호의 확대는 양측 모두에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딜레마를 안겼다. 어느 일방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지루한 현상유지가 이어졌고, 그 결과 참호전은 무려 4년 동안 지속됐다.

## 미중 경쟁과 한국의 유연성 문제

지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도 높은 공세를 폈다. 그 이유는 경쟁 상대로서 중국의 부상과 도전이 수용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봤기 때문이다. 양국 간 경쟁과 갈등은 경제·통상 부문에서 시작됐지만 곧 과학·기술, 정치·군사 등 사실상 모든 영역으로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상호 불신이 크게 고조됐으며, 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경쟁과 탈동조화가 빠르게 심화했다.

미국은 과감하게 행동했지만 빠르게 싸움을 종결짓지 못한 채 다음 공격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예상치 못했던 공세에 당황했지만 이내 전열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현재 미국이 여러 척도에서 중국에 비해 우세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압도적이라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양국은 타협과 협력보다는 본격적인 대결을 위한 준비 작업에 주력하는 듯하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런 흐름에 근본적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국의 학술·정책공동체 내에서는 이런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의 논의들은 대체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 가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이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구사해온 기존 전략을 상황의 변화에 맞게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그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미중 경쟁은 참호전 같다. 그리고 참호전은 그 성격상 물량전, 소모전, 장기전이다. 여기서 1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유럽 군소국가들이 처했던 운명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중 경쟁의 와중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의 참호가 되어 이 싸움에 직접 연루될 수 있으며, 의미 없는 희생과 소모의 대상으로서, 장기적으로 강대국 경쟁의 비용을 부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색해야 할 대안의 핵심은 바로 이 같은 연루와 희생의 최소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한국은 현재 '동맹'과 '전략적 동반자'의 형식으로 미중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국가 사이의 경쟁이 나날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소위 선택의 딜레마에 처해있다. 두 강대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선택해서도 안 되는 난처한 처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다름 아닌 '유연성'일 것이다. 유연하지 않고 현재의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 인식과 행위의 전환을 위하여

우선 인식의 측면에서 유연성 확대를 위해 다음의 문제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제정치관에 입각한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과도기적 국제질서는 분명 우리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과정은 도전과 함께 기회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현 상황에서 기존의 약소국 콤플렉스에 기초한 수동적 국제정치관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오히려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호적인 질서 창출을 모색해보려는 원대한 포부가 필요하다. 물론 여기서 자신의 역량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에게 국제질서 재편 과정의 유동성을 고려한 적극적·능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외교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연대의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작금의 미중 경쟁은 불가피하게 경쟁 참여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미국은 일본과, 중국은 러시아와의 동맹 또는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 간의 동맹과 제휴가 심화강화될수록 동북아시아에서 진영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관계는 불변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 국가들 관계에도 적지 않은 이해관계 상충의 틈이 존재할지 모른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역내 진영 구조의 완화이완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일본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위의 측면에서 유연성 확대를 위해 고민해볼 내용들이다. 첫째, 확고하고篤심 있는 외교의 '다각화'가 절실하다. 우리는 한국 외교가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돼있다는 인상을 받곤 한다. 더욱이 두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소모와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이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반대로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한국 외교의 총체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유연한 운신에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외교의 다각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며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둘째, 소다자주의를 창조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공동 번영을 위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전제 아래 역내의 다자주의 강화를 지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타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역내 질서로 말미암아 다자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됐다. 따라서 한국은 이 같은 기본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선 부담과 저항이 적은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역내 행위자들과 협력이 쉽고 성과의 도출이 용이한 사안과 부문을 중심으로 다원적·중층적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간의 교집합을 지속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다자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참호전 격랑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